

‘인천민속문화의 해’
인천으로 초대합니다.

2018 한국민속학자대회
황해에서 경계를
넘어선 한민족을 보다

기간 2018년 11월 9일(금) ~ 11일(일)

장소 [9일]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10일] 인하대 60주년 기념관

[11일] 인천강화도 일대

대상 민속 관련 전문연구자

2018년 한국민속학자대회

황해에서 경계를 넘어선 한민족을 보다

인천 민속문화의 해, 2018년 한국민속학자대회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지역민속의 해는 지역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유관 학회들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관련 학술단체들과 명실상부한 교직의 난장을 펼칩니다. 한국민속학술단체연합회 소속 여덟 개의 학회 뿐만 아니라 민속학을 표방하거나 연계하는 많은 학회들이 전체 주제에 부응하는 각각의 주제들을 걸고 참여해주십니다.

지역은 북한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사해동포들의 땅도 포함합니다. 올 해 주목하는 바가 많습니다. 경계를 허물고 싶습니다. 물길 교류의 현장 황해에서 경계를 넘어선 한민족을 상상해보고 싶습니다. 분단의 극복, 새로운 평화의 시대 빛장을 민속학이 열어젖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논의들이 우리 시대의 담론으로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북한민속학자, 조총련계 등 전력을 다해 추진했던 초청 건들을 성사시키지 못한 회한은 남습니다만 여러 주제들이 이를 넘어서니 고무적입니다.

인천시에서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시지정 무형문화재를 묶어 연희난장을 마련해주셨습니다. 학술과 연희가 연대하는 지역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전체회의에서는 경계의 한민족을, 이튿날 9개의 분과에서는 보다 세분화된 논의들이 연구욕을 추동합니다. 표방하는 바들이 신선합니다. 오래된 질문을 넘어 새로운 대답들이 준비됩니다. 여타 분과학문의 학자대회를 능가하는 민속학자대회로 발돋움합니다. 여러분들의 격의 없는 응원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열린 무대 열린 공간입니다. 참석자들은 취향에 따라 분과발표들을 골라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회의, 분과회의, 무형문화재공연을 비롯해 마지막 날은 인천시가 자랑하는 민속현장을 답사합니다. 3일간의 한국민속학자대회를 통해 70여년을 훌쩍 넘긴 분단 극복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강제된 경계를 훌쩍 넘어 평화와 화해의 시대를 준비하는 민속학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2018. 11.

한국민속학술단체연합회 회장 이윤선

주제 | 2018년 한국민속학자대회 “황해에서 경계를 넘어선 한민족을 보다”

일정 | 2018년 11월 9일(금) ~ 11월 11일(일)

첫째날 : 전체회의, 인천무형문화재 공연 / 둘째날 : 분과회의 / 셋째날 : 인천 강화지역 민속답사

장소 | [9일] 전체회의-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10일] 분과회의-인하대 60주년 기념관 [11일] 민속답사-인천강화도 일대
숙박 | 인천 하버파크호텔

주관 | 한국민속학술단체연합회 (비교민속학회, 한국구비문학회, 한국민속학회, 실천민속학회, 판소리학회, 한국민요학회, 한국무속학회, 남도민속학회)

인하대 아시아다문화융합연구소,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주최 | 국립민속박물관, 인천광역시

협력 | 서울민속학회, 경기민속학회, 인천민속학회, 아시아강원민속학회,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황해섬네트워크, 경기만포럼, 우리글진흥원, 지방분권전남연대,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1일차 전체회의 11월 9일(금)

1일차 전체회의 : 황해에서 경계를 넘어선 한민족을 보다

일시 : 2018년 11월 9일(금) 12:00~

장소 :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풍류관 / 인천 하버파크호텔

12:00~12:20 등록 및 접수

주제발표 | 제1부 민속학의 경계를 넘어

진행 박경수(부산외대)

12:20~12:50 **[기조발표1]** 분단 전후 아리랑의 전개국면과 민족공동체 복원을 위한 아리랑의 활로 모색
발표 강등학(강릉원주대)

12:50~13:20 **[기조발표2]** 스토리텔링으로 민속학의 경계 넘기 : 지역과 민족에서 다문화로
발표 김영순(인하대)

인천 무형문화재 공연

진행 홍태한(전북대)

13:20~14:10 <공연1> 인천광역시무형문화재 제24호 꽃맞이굿 공연

주제발표 | 제2부 민속학과 디아스포라 한민족의 정체

진행 신동훈(건국대)

14:10~14:40 **[주제발표1]** 미국 민속학 연구의 최근 동향에 비춰본 한국 민속학의 미래 -디지털 민속학론을 중심으로-
발표 Charles la Shure 나수호(서울대) 토론 남근우(동국대)

주제발표 | 제2부 민속학과 디아스포라 한민족의 정체

진행 서영대(인하대)

14:40~15:10 **[주제발표2]** 로컬로써의 북한춤: 버내쿨러한 것의 만남
발표 김채원(충문화비교연구소) 토론 이철주(4.27시대연구원)

15:10~15:40 **[주제발표3]** 재중 조선족의 정체성과 민속문화
발표 허명철(중국 연변대) 토론 배영동(안동대)

개회식

진행 장장식(국립민속박물관)

15:40~16:10 개회사 : 한국민속학술단체연합회장 **이윤선**
환영사 : 국립민속박물관장 **윤성용**
축사 :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종합토론

진행 장장식(국립민속박물관)

16:10~17:00 좌장 : 나승만(목포대) 발표자 및 토론자 (종합토론 때 지정토론 진행)

17:00~17:10 [휴식 및 장내정리]

인천무형문화재공연

진행 홍태한(전북대)

17:10~17:50 <공연2>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90호 황해도 평산 소놀이굿 공연

17:50~18:30 <공연3> 인천광역시무형문화재 제10-나호 범패·작법무 공연

만찬 및 숙박

18:30~19:00 [이동]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 인천 하버파크호텔 이동 (버스 1대, 자가용)

19:10~20:30 [만찬] 차이나타운 내 중식당 “연경”

20:30~ [숙박] 장소 : 인천 하버파크호텔

2일차 분과회의 개요 11월 10일(토)

2일차 분과회의 : 황해에서 경계를 넘어선 한민족을 보다

일 시 : 2018년 11월 10일(토) 09:00~

장 소 :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

09:00~09:20 접수 및 등록

분과발표(오전)

	[1분과] 민속과 다문화, 그리고 스토리텔링 : 황해를 넘어서 '이야기'로 만나는 한국과 아시아 주관 한국구비문학회·인하대 아시아다문화융합연구소·비교민속학회	101호
09:30~12:30	[2분과] 황해도 무속과 인천민속의 현장 주관 인천대 인천학연구원·국립민속박물관·한국무속학회	106호
	[3분과] 한국민요와 지역민속의 확산과 과제 주관 한국민요학회·아시아강원민속학회	107호
12:30~13:30	[점심식사]	

분과발표(오후)

	[1분과] 민속과 다문화, 그리고 스토리텔링 : 황해를 넘어서 '이야기'로 만나는 한국과 아시아 주관 한국구비문학회·인하대 아시아다문화융합연구소·비교민속학회	101호
	[2분과] 황해도 무속과 인천민속의 현장 주관 인천대 인천학연구원·국립민속박물관·한국무속학회	106호
	[3분과] 한국민요와 지역민속의 확산과 과제 주관 한국민요학회·아시아강원민속학회	107호
	[4분과] 지명과 민속 -전래지명과 도로명 주소- 주관 남도민속학회·우리글진흥원·지방분권전남연대·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201호
13:30~17:00	[5분과] 북한민속학의 연구현황과 과제 주관 한국민속학회·실천민속학회·안동대 민속학연구소	206호
	[6분과] 서울·인천·경기의 도시민속 주관 인천민속학회·서울민속학회·경기민속학회	207호
	[7분과] 평화로운 물길 통일을 꿈꾸다 주관 황해섬네트워크·경기만포럼·아시아문화연구원	507호
	[8분과] 현장에서 본 농악연구 주관 농악 연구자모임	508호
	[9분과] 충청지역 농경어로유산 주관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509호
17:00~17:10	[휴식]	

시상식 | 대학생·대학원생 논문공모 시상식

17:10~17:30	심사논평 심사위원장 시상 한국민속학술단체연합회장	106호
-------------	-----------------------------------	------

민속정책 제안

	[제안1] 한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북한민속조사 제안	106호
17:30~18:20	[제안2] 한국민속예술축제의 한민족 축제화 좌장 허남춘(한국무속학회회장, 제주대) 좌담 연합회 소속 8개 학회장 좌담. 전체 참가자 자유토론	

총회 및 총평

17:30~18:20	한국민속학자대회 운영 현황 보고 및 전망 대회 총평 임재해(안동대)	106호
-------------	--	------

식사 및 숙박

19:00~20:00	[식사] 경복궁 (인천 학익점)
20:30~	[숙박] 인천 하버파크호텔

[1분과]

민속과 다문화, 그리고 스토리텔링

- 황해를 넘어서 '이야기'로 만나는 한국과 아시아 -

일시 2018년 11월 10일(토) 09:20~17:00

장소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 101

주관 인하대 아시아다문화융합연구소, 비교민속학회, 한국구비문학회

시간	발표자	소속	발표제목	진행
09:20-09:30	〈개회〉 학회장 및 연구소장 인사			박현숙 (건국대)
09:30-10:50	김영희	연세대	남북한 구전이야기의 문화적 차이와 소통 가능성	오영훈 (인하대)
	조영철· 오영섭	인하대	생활세계 기반 다문화 스토리텔링 방법	
	방동주 Alicia	국제 스토리텔러	국제 스토리텔링 축제를 통한 아시아 이야기꾼 연대활동 보고서	
1부 자유토론				
10:50~11:00	휴식			
11:00~12:20	장정태	한국민속 종교연구소	〈삼국유사〉 속 국제결혼을 통해 본 다문화사회	김정경 (인천대)
	김정희· 박미숙	인하대	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생애담 연구 사례	
	권혁래	용인대	결혼이주민들이 전하는 베트남 동화의 모습과 다문화동화로서의 성격	
2부 자유토론				
12:20-13:30	〈점 심 시간〉			
13:30-15:10	이덕우	가나가와대	재외 'Korean' 식문화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	서종원 (중앙대)
	최유정	안동대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텃밭 활용 양상과 의미	
	박봉수	인하대	포토텔링 기반 사할린 영주 귀국자 생애 스토리텔링 모형	
	윤인선	가톨릭대	외국인 선교사의 조선 경험 서사에 나타나는 타문화 인식과 이해의 글쓰기	
3부 자유토론				
15:10~15:20	휴식			
15:20-16:40	황해영· 장연연	인하대	중국 동북지역 '민족 이야기' 구성을 위한 스토리텔링 모형	오정미 (건국대)
	여수경	한빛문화재 연구원	미얀마 빨라웅족 따띠쥬 축제와 한국의 정월대보름 행사에 대한 비교	
	장요공	건국대	한국과 중국의 업신 및 보가선 설화와 신앙에 담긴 연민인식 고찰	
4부 자유토론				
16:40~17:00	제1분과 소감 나누기 및 총평			박현숙 (건국대)

분과회의 세부일정

[2분과]

황해도 무속과 인천민속의 현장

일시 2018년 11월 10일(토) 09:30~17:00

장소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 106

주관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무속학회

시간	발표자	소속	발표제목	진행
09:30~09:40	〈개회사 및 인사말〉 인천대 인천학연구원장, 한국무속학회장			
09:40~10:10	김창일	국립민속박물관	조기의 섬에서 꽃게의 섬으로 -어획어종의 변화에 따른 주민의 생활상	장장식 (국립민속 박물관)
10:10~10:40	안정윤	국립민속박물관	인천 공단과 노동자들의 생활문화	
10:40~11:10	손정수	국립민속박물관	강화도 선두포 마을 70년의 변화-마을 종교생활의 변화를 중심으로	
11:10~11:30	〈휴식〉			
11:30~12:20	〈1부 토론〉 좌장 장장식 (국립민속박물관) 토론 남동걸(인천학연구원), 남승균(인천학연구원), 안정현(인천광역시 동구사편찬위원회)			
12:20~13:40	〈점심시간〉			
13:40~14:10	홍태한	무형문화연구원	황해도굿 연행주체의 계보 변화와 의미	양종승 (사머니즘 박물관)
14:10~14:40	김은희	고려대	황해도 진적곳의 대신거리에 대한 이해와 의미 분석 -박선옥, 박명애 만신의 사례를 중심으로	
14:40~15:10	장순범	안동대	황해도굿의 도깨비놀음과 정체성	
15:10~15:20	〈중간 휴식〉			
15:20~17:00	〈2부 토론〉 좌장 양종승(사머니즘박물관) 토론 허남춘(제주대), 강소전(제주대), 김동규(서강대), 윤동환(전북대)			

[3분과]

한국민요와 지역민속의 확산과 과제

일시 2018년 11월 10일(토) 09:00~17:00

장소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 107

주관 한국민요학회, 아시아강원민속학회

시간	발표자	토론자	발표제목	진행
09:00~09:10	〈개회사 및 인사말〉 이창식(아시아강원민속학회장), 박경수(한국민요학회장)			
09:10~09:40	이영식 (강릉원주대)	유형동 (중앙대)	강원 북부지역의 거리제 양상	이창식 (세명대)
09:40~10:10	최명환 (한국외대)	유명희 (한림대)	강원도 전통지식의 의미와 연구 필요성	
10:10~10:20	〈휴식〉			
10:10~10:40	김도현 (강원대)	강명혜 (강원대)	강원도지역의 피난민 민속	박경수 (부산외대)
10:40~11:10	좌혜경 (제주학연구센터)	전계영 (충북대)	아마미(奄美) 고미나토(小湊) 하찌가츠오도리(八月踊) 가사의 전통	
11:10~11:20	〈휴식〉			
11:20~11:50	이소영 (명지병원 예술치유센터장)	정서은 (경북대)	해방 후 남북한 신민요 비교 연구	박혜정 (건국대)
11:50~12:20	김정희 (한예종)	신은주 (전북대)	북한 어업노동요의 음악적 특징	
12:20~13:30	〈점심식사〉			
13:30~14:00	김혜정 (경인교대)	정한기 (전주교대)	2015개정 초등 3, 4학년 음악 교과서의 항토민요 수록 현황 및 교육적 지향	홍순일 (목포대)
14:00~14:30	이소라 (민족음악연구소)	김인숙 (한중연)	강화군 긴 달고류 논매기소리와 논김방아타령	
14:30~14:40	〈휴식〉			
14:40~15:10	김미경 (김미경스토리텔링연구소)	기미양 (안동대)	중국 조선족 아리랑의 확산과 과제	최상일 (성공회대, 전 MBC PD)
15:10~15:40	노재명 (국악음반박물관)	서정매 (부산대)	한국 〈아리랑〉과 닮은 코카서스산맥 〈농부가〉	
15:40~15:50	〈휴식〉			
15:50~17:00	발표자와 청중과의 질의 응답			서영숙 (한남대)

분과회의 세부일정

[4분과]

지명과 민속 전래 지명과 도로명 주소

일시 2018년 11월 10일(토) 13:30~17:00

장소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 201

주관 남도민속학회, 우리글진흥원, 지방분권전남연대,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시간	발표자	소속	발표제목	진행
〈발표자 소개 및 인사〉				
13:30~13:50	손희하	전남대	전래 동명 주소와 도로명 주소, 전래 지명 조사의 필요성	이윤선 (남도민속학 회장)
13:50~14:10	강상헌	우리글진흥원	지명의 언어민속(학)적 고찰	
14:10~14:30	강진갑	역사문화 콘텐츠연구원	광고신도시 지명 제정 연구	
14:30~14:50	박상일	지방분권 전남연대 수석상임 대표	마을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도로명주소	
14:50~15:00	〈휴식〉			
15:00~15:20	황호균	광주광역시 문화재위원	불교 지명 속에 담긴 문화사 정보 - 종장 · 종촌 · 종동 · 종골을 중심으로 -	
15:20~15:40	윤여정	나주향토학연구소	역사민속 옛지명의 쓰기와 읽기	
15:40~16:00	김희태	남도민속학회	오형묵의 〈여수잡영(麗水雜詠)〉(1898)과 향토민속경관 지명	
16:00~16:10	〈휴식〉			
16:10~17:00	〈종합토론〉 좌장 이윤선(남도민속학회장) 토론 참가자 전체			

[5분과]

북한민속학의 연구현황과 과제

일시 2018년 11월 10일(토) 13:30~17:00

장소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 206

주관 (사)한국민속학회, 실천민속학회,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시간	발표자	소속	발표제목	진행
13:30~13:40	〈발표자 소개 및 인사〉			
13:40~14:10	강정원	서울대	북한 민속의 구조와 변화	남찬원 (경희대)
14:10~14:40	이정재	경희대	북한의 민속연구 경향과 특징 연구	
14:40~15:10	권태상	동국대	북한의 사회주의적 마을의 형성	
15:10~15:30	휴식			
15:30~16:30	〈지정토론〉 좌장 남찬원(경희대) 토론 이상현(안동대), 이진교(안동대), 박선미(안동대), 김준기(경희대)			
16:30~17:00	종합토론(청중토론) 좌장 남찬원(경희대) 토론 청중토론			

분과회의 세부일정

[6분과]

서울·경기·인천의 도시민속

일시 2018년 11월 10일(토) 13:30~17:00

장소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 207

주관 인천민속학회, 서울민속학회, 경기민속학회

시간	발표자	소속	발표제목	진행
13:30~13:40	〈발표자 소개 및 인사〉			
13:40~14:00	유선영	이천학연구소	산내리 마을 공동체의 변화	이영수 (인하대)
14:00~14:20	임근혜	안성맞춤박물관	안성맞춤유기(鎡器)의 현대 상품화 과정	
14:20~14:40	김태우	경희대	한강 유역 국행 기우제의 기억과 장소성: 한남동 용단마을, 보광동 우사단마을, 광장동 용당산을 중심으로	
14:40~15:00	〈휴식〉			
15:00~15:20	배성수	인천도시역사관	일제강점기 인천부의 공설시장 형성과정	엄경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15:20~15:40	홍현도	서울역사박물관	일제강점기 인천의 공동주택 건설	
15:40~16:00	김현석	인천민속학회	인천노동사 및 노동민속의 방법과 전망	
16:00~16:10	〈휴식〉			
16:10~17:00	〈종합토론〉 좌장 서종원(중앙대) 토론 황은수(미추홀구청), 이연경(인천대), 권혁희(서울시립대), 안주영(서울대)			

[7분과]

평화로운 물길, 통일을 꿈꾸다

일시 2018년 11월 10일(토) 13:30~17:00

장소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 507

주관 황해섬네트워크, 경기만포럼, 아시아문화연구원

시간	발표자	소속	발표제목	진행
13:30~13:40	〈발표자 소개 및 인사〉			윤종준 (아시아문화 연구원)
13:40~14:10	임학성	인하대	20세기 초 황해도 襄津郡 島嶼住民의 생활 양태	
14:10~14:40	이영태	황해섬네트워크	팔경과 인천 섬	
14:40~14:50	휴식			
14:50~15:20	김용국	아시아문화연구원, 경기만포럼	사람의 자취, 경기만의 기록	
15:20~15:50	정현채	사)지역문화 전략연구원	경기도 김포시 조강문화(祖江文化)	
15:50~16:20	김갑곤	경기만포럼, 연안보존네트워크	경기만 에코뮤지엄과 연안사회 지역공동체 활동	
16:20~16:30	휴식			
16:30~17:00	〈종합토론〉 좌장 윤종준(아시아문화연구원) 토론 참가자 전원			

분과회의 세부일정

[8분과]

현장에서 본 농악연구

일시 2018년 11월 10일(토) 13:30~17:00

장소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 508

주관 농악 연구자모임

시간	발표자	소속	발표제목	진행
13:30~13:50			〈발표자 소개 및 인사〉	
13:50~14:10	조춘영	성균관대	전국 풍물굿 단체의 활동 현황과 활동범주 분류를 위한 탐색 - 21C 풍물굿 상식론 프로젝트에 기반하여	송기태 (목포대 도서문화 연구원)
14:10~14:30	구자호	성공회대 문화연구소	도시에서 풍물굿의 예술적 의미	
14:30~14:40			〈휴식〉	
14:40~15:00	김태훈	청도차산 농악보존회	풍물굿 현장에서 느끼는 제반 여건의 변화	
15:00~15:20	우용근· 서수희	강릉농악보존회	강릉농악 활동 사례로 본 공연 공간 '마당'의 활용	
15:20~15:30			〈휴식〉	
15:30~15:50	이성수	고창농악보존회	우도농악장단 이해에 대한 고찰 - 고창 우도영무장농악 장단을 바탕으로 -	
15:50~16:10	김선태	완주문화원	한국 농악 연구의 방향을 묻는다 - 농악 연구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16:10~16:20			〈휴식〉	
16:20~17:00	〈종합토론〉 좌장 송기태(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토론 참가자전원			

[9분과]

충청지역 농경어로유산

일시 2018년 11월 10일(토) 13:30~17:00
 장소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 509
 주관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시간	발표자	소속	발표제목	진행
13:30~13:40	〈발표자 소개 및 인사〉			강성복 (공주대)
13:40~14:10	박종익	충남대	장고항 실치잡이 전승지식	
14:10~14:40	박종오	목포대	원산도 까나리잡이 전승지식	
14:40~14:50	휴식			
14:50~15:20	강성복	공주대	서해안 해녀배사업과 나잠업	
15:20~15:50	김효경	한남대	충남 서산의 양잠기술과 변화양상	
15:50~16:20	김재호	안동대	저수지 수리문화의 변화와 특징 -제천 의림지를 중심으로	
16:20~16:30	휴식			
16:30~17:00	〈종합토론〉 좌장 박종익(충남대) 토론 참가자 전원			

3일차 <인천 강화지역 민속답사> 11월 11일(일)

주제 인천 강화지역 민속답사

일시 2018년 11월 11일(일) 08:20~17:30

해설 국립민속박물관

▶답사일정

시간	일정	비고
08:20	인천 하버파크호텔 집결	대형버스 2대
08:20~09:20	이동	
09:20~10:10	<강화군 길상면 선두포리>	
10:10~10:20	이동	
10:20~11:10	<강화도 전등사>	
11:10~11:40	이동	
11:40~12:30	<강화도 외포리 꽃창굿당>	
12:30~13:30	점심식사	
13:30~14:00	이동	
14:00~14:40	<강화도 평화전망대>	
14:40~15:10	이동	
15:10~15:40	<강화도 관제묘(동관묘)>	
15:40~16:30	<강화성공회성당>	
16:30~17:30	이동	
17:30	인천 하버파크호텔 앞 해산	

1. 강화도 선두포

선두포(船頭浦)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2리 자연촌이다. 이 마을은 미국 예일대학교 교수이자 인류학자인 커넬리우스 오스굿(Cornelious Osgood, 1905~1985)이 1947년 7월 7일부터 9월 1일까지 57일간 민속조사를 통해 1951년 『한국인과 그들의 문화(The Koreans and their culture)』로 펴낸 농촌이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선두포 70년의 변화상을 추적하기 위해 오스굿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2017년 민속조사를 했다. 비록, 마을길과 농수로, 가옥이 바뀌고 경지정리로 많은 변화가 있었을지라도 선두2리 주민은 정족산과 길상산에 기대어 같은 땅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다.



〈그림 1〉 선두포 마을 전경

선두2리의 한 자연촌이자 선두리의 기원이 되었던 ‘선두포’는 현재 경지정리를 통한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으로 바뀌었지만 그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배가 드나들던 포구에서 시작되었다. 문헌 기록상으로 마을은 1600년대 후반 간척지를 얻기 위한 ‘선두포언(船頭浦堰)’이라는 제방 축조 논의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선두포언은 1706년 9월 6일 숙종의 허락을 받아 같은 달 18일에 공사를 시작해서 이듬해인 1707년 5월 25일에 완공되었다. 이후 마을은 넓은 간척지를 얻게 되었으나, 바닷물이 빠지지 않고 제방이 무너지는 등 주민이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간척지로부터 수확물을 얻는 것은 쉽지 않았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2017년 조사를 바탕으로 2018년 주민들이 전승해 온 민속문화를 두 권의 민속조사보고서를 펴냈다. 제1권 ‘70년 만에 다시 기록한 강화 선두포’에서는 오스굿이 조사하고 기록했던 방법으로 1947년부터 2017년까지 선두포 마을을 마을의 역사, 경제생활, 식생활, 주생활, 종교생활, 일생의례 등으로 조사하고 기록했다. 그리고 제2권 ‘강화 선두포 살림살이, 70년간 흔적과 변화’에서는 오스굿이 1947년 마을에서 수집한 300여 점의 살림살이를 토대로 토박이 세 가구를 선정해서 70년간 살림살이 변화상을 추적하고 기록했다.

선두포는 조선시대 제방의 면모를 볼 수 있는 시대적 자료와 더불어 인류학적인 자료를 담고 있는 곳이다. 커넬리우스 오스굿(Cornelious Osgood)은 예일대학교와 예일피바디자연사박물관 조사프로그램으로 한국에 왔다. 그는 1947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강화도 선두포마을에서 민속조사를 하였다. 한국의 마을, 경제, 역사, 문화사, 현대의 한국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1951년 『The Koreans and their culture』로 엮어냈다. 다른 한편 오스굿은 강화도의 생활유물 342점을 수집하였으며, 이 자료는 예일대학교 피바디자연사박물관에 소장중이다.

국립민속박물관은 2017년 커넬리우스 오스굿의 발자취를 따라가 70년의 변화를 담은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오스굿이 1947년 조사했을 당시 선두포 부근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을 다시 찾았다. 오스굿이 수집했던 생활문화자료도 현재 사용하는 것과 대체된 것을 구분하여 파악했다. 1947년 사진에 나온 사람들과 장소, 민가와 도구 등을 살펴 정리하였으며, 『The Koreans and their culture』의 구성을 참조하여 조사보고서에 참고하였다. 『70년(1947~2017년) 만에 다시 기록한 강화 선두포 마을지』와 『강화 선두포 살림살이 - 70년간(1947~2017년) 흔적과 변화』는 2017년 한 해 동안 조사한 결과물이다.

2. 전등사(傳燈寺)

1600년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전등사는 고구려 소수림왕 11년(381)에 아도화상이 처음 창건하고 진종사(眞宗寺)라 이름 지었다. 그 후 고려 충렬왕비 정화공주가 이 절에 귀한 옥등을 시주했다 하여 전등사로 개명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임금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궐을 지었고, 조선 병인양요 때는 양헌수 장군이 병력을 이끌고 초지진을 건너 이곳(삼랑성)에서 프랑수군을 무찔렀다.



〈그림 2〉 전등사 대웅전

가람 배치는 전형적인 산지가람(山地伽藍)의 배치를 따르고 있다. 절 입구의 대조루를 지나면 정면 남향한 대웅보전이 있고, 그 주위에는 약사전·명부전·삼성각·향로전·적묵당·강설당·종각·대조루(對潮樓) 등이 있다. 대웅전은 보물 제178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내부에는 석가·아미타·약사 여래의 삼불과 1916년에 그린 후불탱화, 1544년 정수사(淨水寺)에서 개판한 『법화경 法華經』 목판 104매가 보관되어 있다.

대웅전 네 귀퉁이 기둥 위에는 여인의 형상이라고 하는 나녀상(裸女像)이 추녀의 하중을 받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재미있는 설화가 전한다. 광해군 때 대웅전의 공사를 맡았던 도편수가 절 아랫마을에 사는 주모에게 돈과 집물을 맡겨 두었는데, 공사가 끝날 무렵 주모는 그 돈과 집물을 가지고 행방을 감추었다. 이에 도편수는 울분을 참을 길이 없어 그 여자를 본뜬 형상을 나체로 만들어 추녀를 들고 있게 하였다. 그러므로써 불경 소리를 듣고 개과천선하도록 하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악녀를 경고하는 본보기로 삼게 했다고 전한다.

뜰엔 6백 년 된 은행나무와 한 번 돌리면 경전을 읽은 것과 같은 공덕이 있다고 전해지는 윤장대가 놓여있다. 대웅보전은 조선 중기의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 약사전, 범종과 더불어 전등사의 3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인천관광 100선〉,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참조)

3. 외포리 꽃창굿당

강화도 내가면 외포리의 꽃창굿당은 농어촌 복합형 마을제사 꽃창굿이 행해지는 굿당이다. 꽃창굿은 갯가와 상산당을 오가면서 진행되며, 보통 3년을 주기로 음력 2월 초 본격적으로 고기잡이를 하기 전 사흘에 걸쳐 행한다. 외포리는 농업을 하는 대정(大井)마을과 어업을 하는 정포(井浦)마을로 구분되지만 꽃창굿은 마을의 평안과 풍농, 풍어를 모두 위하여 두 마을이 협력한다. 수살맞이굿으로 시작하는 꽃창굿은 돌돌이 우물용왕굿, 아랫당굿, 거리부정(선부정), 초부정, 초가망, 장군대신굿, 제석거리, 성주거리(성주모심), 장군거리(작두거리), 별상거리, 창부거리, 선주거리, 기내림(선주굿기내림굿), 군웅굿, 상산막동놀이, 뒷전으로 이어진다. 뱃기오름,

선주굿, 기내림의 형식은 서해안풍어제와 비슷하며, 봉기를 제당 마당에 세워놓거나 작두를 타는 것 등은 서해안굿에서 하는 모습을 닮았다. 한편 바닷가에서 수살맛이를 하고 마을의 우물들을 돌아 용왕굿을 한 뒤 본굿이 진행되는 과정은 서해안굿과 거리가 있으며, 무당의 춤사위와 굿거리 사설은 서울굿과 가깝다.



〈그림 3〉 외포리 꽃창굿당

꽃창굿당은 상산당이라고도 불리며, 외포리 마을 언덕

위에 위치한다. 당 내부에는 주신 득제장군(得帝將軍, 또는 득태장군(得太將軍))이 가운데 좌정하고 있다. 그 주위로 별상, 군옹할아버지, 군옹할머니, 용왕, 산신, 칠성, 제석, 창부, 신장(오방신장), 번영대신(본향대신), 대감의 열두 신령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무당이 대를 이어 당주(堂主)가 되는데, 당주는 당을 관리하기보다 꽃창굿을 주재하는 사람을 말한다. 현재 꽃창굿당의 당주는 이기준이며, 주무는 정정애(1932년생) 만신이다. 정정애 만신은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8호 <강화외포리꽃창굿> 보유자이다. 소임(所任)은 꽃창굿이 진행되는 모든 준비를 맡으며 상소임, 중소임, 하소임으로 구분된다. 꽃창굿을 하기 전에 꽃창굿당 옆에 산막을 짓고 굿이 끝날 때까지 내려가지 않는다. 꽃창굿을 할 때에는 꽃창굿당 앞에 대동기, 대정마을기, 정포마을기 3개와 뺏기 9개를 세운다.

4. 강화평화전망대

강화군 양사면 민간인 통제선 북쪽에 위치한 강화제적봉 평화전망대는 강화평화전망대로도 불린다. 지하 1층과 4층은 군사지역으로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다. 1층에는 강화특산품과 북한의 특산물 등을 판매하는 토산품 판매장과 식당, 관리사무실, 게스트 룸이 있다. 이산가족을 달래고 통일을 염원하는 중앙의 나무는 통일염원소이다. 2층에서는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한 자료와 6.25 전쟁 당시의 배경, 그 이후의 피해 상황 등을 영상으로 볼 수 있다. 3층 전망대에서는 북한을 볼 수 있



〈그림 4〉 강화평화전망대

는 북한을 볼 수 있다. 3층 전망대에서는 북한을 볼 수 있

으며, 날씨가 흐린 날은 영상으로 볼 수도 있다. 강화평화전망대의 주변에는 이산가족들이 제사를 지내는 망배단과 전망대가 있는 고지인 제적봉비, 임진왜란 때 연성대첩을 기념하는 연성대첩비가 있다.

5. 동관제묘

관우(?~219)는 중국 삼국 시대 촉(蜀)나라의 무장으로서, 지금의 산시성 원청현인 하동군 해현에서 출생하였고 자는 운장(雲長)이다. 삼국시대를 지나면서 관우는 충의의 화신으로 자리 잡았으며, 수·당대에는 본격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추앙받았다. 이처럼 중국에서 관우신앙은 보편적인 신앙으로 마을의 수호신으로 널리 추앙되었으며, 무신(武神)과 재신(財神)으로의 성격까지 겸비하였다. 관우에



〈그림 5〉 동관제묘

대한 신앙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이다. 1598년(선조31)서울 숭례문 밖에 남관왕묘가 처음 세워졌으며, 같은 해 경상북도 성주와 안동 등지에 명나라 장군들이 세운 관왕묘가 남아 있다. 한편 1600년에 세운 동묘가 서울 동대문 밖에 있다. 현재 강화에 남아있는 관제묘는 19세기 말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며 동·남·북 방향에 3곳 남아있는데 건립 연대로 보아 명성황후의 후원에 힘입었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동관제묘는 강화읍 신문리 467번지 합일초등학교의 뒤편에 위치하고 있다. 동관제묘는 1885년(고종22) 마여인이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관제묘에 들어서는 외삼문 앞에는 “금잡인(禁雜人)”이라는 금표가 세워져 있다.

외삼문은 조성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동헌랑묘(東軒廊廟)”라는 현판이 걸려 있고, 안쪽에는 관우와 백마·흑마가 각각 짝을 이룬 그림이 걸려 있다.

외삼문을 들어서면 왼쪽에 “충선전(忠聖殿)”이라는 편액이 걸린 묘당이 있다. 충성전은 팔각 지붕의 정면 3칸 측면 2칸 건물이며 1960년 중건하였다고 전한다. 내부에는 1883년(고종20)에 만들어진 “위진사해고금일인(威振四海古今一人)”이라는 현판이 걸려져 있으며, 관운장을 비롯하여 유비현덕과 장비 등이 모셔져 있다.

현재 동관제묘는 무형문화재 제 8호 외포리 꽃창구의 기능 보유자로 지정되어 있는 정정에 만신이 관리하고 있다.

6. 성공회 강화성당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길 27번지 10(관청리 442번지)에 있는 대한성공회 성당이다. 대한성공회의 초대 주교인 코프(Corfe, C.J)에 의하여 1900(광무4)에 한옥으로 건립되었다. 1981년 경기도 지방유형문화재 111호로 지정되고, 강화군이 인천광역시에 편입되면서 인천광역시 지방 유형문화재로 변경되었다가 2001년 사적 424호로 지정되었다.



〈그림 6〉 성공회 강화성당 실내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은

1900년 11월 15일 건립된 동서 길이 10칸, 남북 길이 4칸인 한식 중층건물이다. 이 성당은 성양의 바실리카식 교회 건축 공간구성을 따르고 있으나 가구 구조는 한식 목구조와 기와지붕으로 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구조와 외관을 한국전통 건축양식에 적응시킴으로서 외래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공회 강화성당은 서쪽에 출입문을 배치하여 서구 형태를 취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배(般) 모양을 본 떠 뱃머리인 서쪽에는 외삼문 및 내삼문과 동종을 배치하고 중앙에는 성당을 두었다. 후미에는 사제관을 배치하여 특이한 양식을 보여주며 우리나라 건축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는 유적이다. 교회의 내부공간은 바실리카 양식을 따랐고, 외관 및 외부 공간은 불교사찰의 형태를 따랐다. 목재는 압록강에서 운반 해다가 사용하였으며, 경복궁 공사에 참여했던 대궐 목수가 건축을 맡았다고 한다.

경사지의 대지를 축성하여 입구 계단, 외삼문·내삼문·성당·사제관을 동남향 종축으로 배치한 외부공간의 구성이 불교사찰의 구름지가람과 비슷하며, 성당 앞마당에는 큰 보리수 나무 두 그루가 서 있다.

성당 내외부에는 서양식 장식이 거의 없는 순수한 한식 목조건축이면서도 교회기능에 충실한 내부공간을 연출함으로써, 초기 성공회 선교사들의 토착화 의지가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 역사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성당 건물이다.



1910년대까지 강화 지역 선교의 중심이 되었으며 성공회 신학교인 성미가엘신학교가 이곳에 설립된 이후 성공회 한국 선교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한국인으로서의 첫 성공회 사제가 된 김희준 신부를 배출하였다.



2018 한국민속학자대회

황해에서 경계를 넘어선 한민족을 보다

주관 | 한국민속학술단체연합회 (비교민속학회, 한국구비문학회, 한국민속학회, 실천민속학회, 판소리학회, 한국민요학회, 한국무속학회, 남도민속학회)
인하대 아시아다문화융합연구소,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주최 |  국립민속박물관  인천광역시

협력 | 서울민속학회, 경기민속학회, 인천민속학회, 아시아강원민속학회,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황해섬네트워크, 경기만포럼,
우리글진흥원, 지방분권전남연대,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